



영국 주류시장 동향

기획조사팀

2008년과 2009년의 세계 경제위기에 영국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소비자의 구매력은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이는 주류시장에도 악 영향을 미쳤었다. 영국의 음주문화를 대표하는 펍(Pub)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으며, 보다싼 가격의 가정용 주류의 소비가 늘어났다. 그러나 2010년에 들어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에서 회복되었고 이에 영국의 주류소비 역시 다시 활력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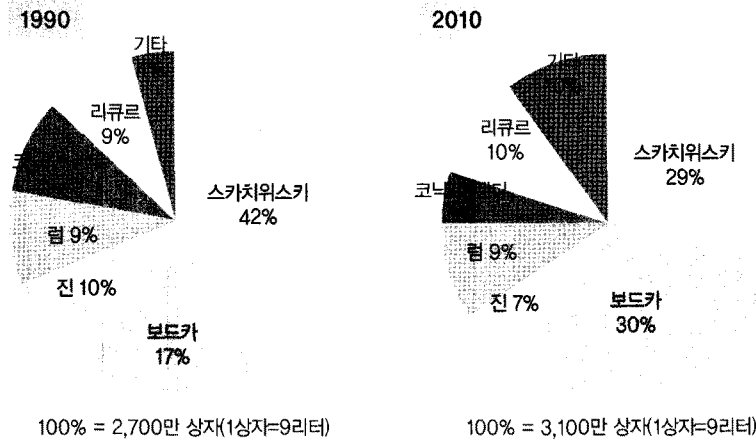
• 증류주

2010년 영국 증류주 소비는 2009년에 비해 4.7% 증가한 3,100만 상자(1상자=9Liter)를 기록했다. 2000년대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보드카는 영국 증류주 시장의 영원한 1등일 것만 같던 스카치위스키를 지난 2007년에 넘어섰으며(소비량 기준), 그 상승세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아메리칸 위스키의 판매량 역시 증가(6.8%증가, 총 매출은 8,750만 파운드)하였는데, 아메리칸 위스키는 영국내 수입 위스키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맥시엄UK(Maxxium UK)의 마케팅 디렉터인 Peter Sandstrom은 향후 영국내 보드카 시장은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록 지난 10년간 영국에서 보드카 소비가 크게 늘어났지만, 현재는 향이 있는 주류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림 1〉 영국 증류주시장 주종별 점유율 비교 (1990 VS 2010)



설명했다. 실제로 다양한 증류주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맥시엄UK는 버번위스키인 짐빔(Jim Beam)에 블랙체리향을 가미한 ‘Red Stag’을 최근 영국에서 런칭하였다.

디아지오(Diageo) 역시 다양한 향이 가미된 ‘스미노프(Smirnoff)’ 제품들의 판매신장을 위해 노력중이다. 향이 가미된 스미노프 제품들은 2010년 업소용, 가정용 모두 두자리수의 판매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디아지오는 자사의 럼 제품인 ‘캡틴 모건(Captain Morgan)’의 영국사업 강화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새롭게 포장된 캡틴 모건을 여름에 출시했다.

영국 주류시장의 또다른 트렌드는 프리미엄화이다. 페르노리카(Pernod Ricard)는 프리미엄제품 유행에 맞춰 “Premium Edge”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한정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영국에서 현재 31% 수준인 프리미엄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5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프리미엄제품이 증류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르고 있다.

영국 증류주 시장의 선전으로 맥주가 차지하고 있던 비중을 증류주로 가져오는데 성공하는 했으나 영국 정부의 주세인상으로 인해 향후 증류주시장 전망은 예측이 어렵게 되었다. 영국 재무장관인 George Osborne은 맥주, 증류주, 와인에 대한 소비세를 2% 인상하였

고 올 3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영국의 WSTA(Wine & Spirits Trade Association)에 따르면 영국의 증류주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4%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세율과 아직 회복이 덜된 불안정한 영국 주류시장에서 프리미엄 증류주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 와인

2010년 영국의 와인소비량은 14억 리터로 전년에 비해 2.9% 증가하였다. 영국은 세계적인 와인소비국이나 와인생산량이 없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으로의 최대 와인수출국은 호주이며, 그 뒤는 이탈리아, 프랑스 순이다.

호주는 2010년 와인수출에 있어 애를 먹었지만, 유독 영국으로의 수출은 호황을 보였다. 2010년 영국의 호수산 와인수입량은 2,020만 상자(1상자=9Liter)였다.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와인수입 1위 국가였으나, 2007년 호수에 1위 자리를 내주었으며, 2010년에는 이탈리아에도 추월당하며 3위로 밀려났다.

영국에서는 와인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업소에서 가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와인업체들은 가정용 와인시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디아지오는 최근 영국에서 주력 와인제품인 'Blossom Hill' 과 'Armiston Bay' 의 새로운 컬렉션들을 런칭하였다. 이 제품들은 아웃렛, 대형매장 등 가정용 판매에 초점을 맞춰 출시되었다.

또 다른 글로벌 와인제조업체인 E&J Gallo는 새로운 제품인 'Summer Red' 를 영국에 런칭할 계획이며, 포스터그룹(Foster's Group)은 'Wolf Blass' 브랜드를 런칭할 계획으로 영국 럭비연맹과 후원계약을 맺고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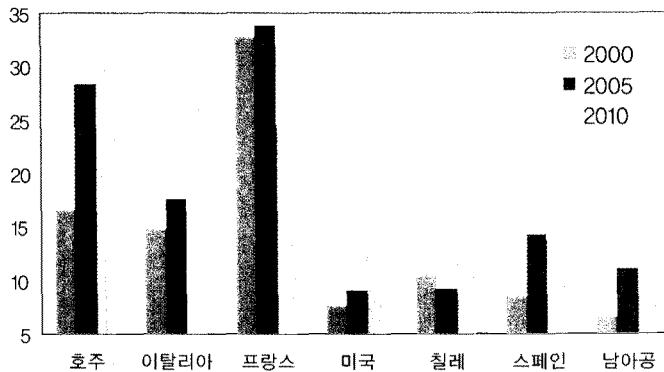
한편 2010년 세계 와인시장에는 대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세계 최대 와인회사중 하나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Constellation Brand)가 자사의 호주와 영국사업을 CHAMP Private Equity of Australia에 매각한 것이다. 이번 매각에는 컨스텔레이션의 호주, 영국 그리고 남아공 브랜드, 와이너리, 공장, 포도농장과 영국 도매업체인 Matthew Clark의 컨스텔레이션 소유지분의 50%까지 포함되었으며 약 2억 9,0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컨스텔레이션은 영국내 최대 와인사업자로 2위에 두 배 이상 많은 와인을 판매하고 있어,

이번 매각으로 영국내 와인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 와인시장 역시 증류주와 마찬가지로 세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소비자는 와인가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세금 인상은 영국의 와인사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림 2〉 영국 국가별 와인 수입량 비교

단위 : 백만 상자 (1상자=9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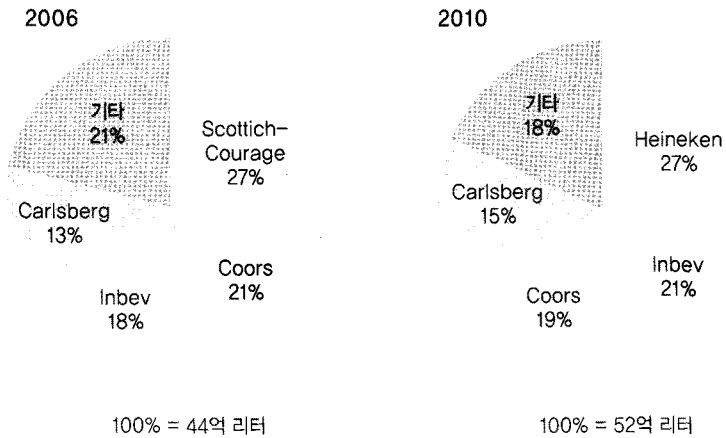


• 맥주

2010년 영국의 증류주와 와인 소비량이 증가한 것과 달리 맥주 소비량은 전년에 비해 3.9% 감소한 43억 8,000만 리터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의 52억 리터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수치로, 이와 같은 맥주 소비량 감소는 맥주에 대한 세금인상과 가정에서의 음주문화 확산의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정부의 지속적인 세금 인상으로 인해 맥주에 대한 세금은 2008년에 비해 35.4%나 증가하였다. 맥주에 대한 영국의 주세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웃 국가인 독일의 10배, 프랑스의 7배에 해당된다. 이는 곧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 가정에서 음주를 하고 있다.

〈그림 3〉 영국 맥주시장 회사별 점유율 비교 (2006 VS 2010)



2007년 펍에서의 흡연금지 조치로 인해 이미 타격을 입었던 펍들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참고로 BBPA(British Beer & Pub Association)에 따르면 매주 평균 25곳의 펍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기존 맥주 소비를 와인과 증류주가 일부 대체하고 있어 맥주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맥주의 라이벌인 사이다(Cider : 사과과즙을 발효시켜 만든 과일주로 알코올 도수는 2~8%로 다양, 일반적으로 포도재배가 곤란한 한랭지대에서 생산)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으로 인해 각광받고 있다. 2010년 영국의 사이다 소비량은 9억 3,500만 리터로 전년에 비해 0.5% 증가하였다. 세계 1위 맥주업체인 AB인베브(Anheuser-Busch Inbev)는 영국시장에서의 자사 맥주인 ‘스텔라 아르투아(Stella Artois)’의 성공에 힘입어 사이다 제품인 ‘스텔라 아르투아 사이다(Stella Artois Cidre)’를 2011년 4월 출시하였다.

영국에서는 RTD(Ready to Drink : 가볍게 마실수 있는 음료 타입의 알코올) 역시 맥주의 대체 상품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2010년 영국의 RTD소비량은 3,500만 리터로 전년에 비해 11.4%나 증가하였다. 지난 5년 동안 영국에서 RTD판매량이 증가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RTD업체들은 가정에서 음주를 즐기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RTD 홍보와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바카디 브라운포맨(Bacardi Brown-Forman)은 ‘Bacardi Mojito’와 ‘Bacardi

Cuba Libre' 를 출시하였다.

바카디는 이 제품이 맥주를 기피하는 24세 정도의 여성소비자들을 주 타겟으로 만들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바카디 브라운포맨은 이외에도 'Southern Comfort & Cola' 를 올 3월에 출시한바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맥주의 소비가 주춤하는 대신 사이더와 RTD에서 이를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주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와인과 증류주의 소비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영국주류업체들이 현재의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출처〉 'Impact' 지 2011년 5월호